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(윤리와 사상)

성명

수험번호

3

1

1. 다음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| | |
|--|--|
| 1 스승님께서 '영혼을 잘 돌보라.'고 하셨습니다.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? | 2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덕을 갖추라는 것네. |
| 3 어째서 우리는 부나 명예가 아닌 덕을 추구해야 합니까? | 4 부나 명예는 덕을 가져다주지 않지만 덕은 행복과 함께 부나 명예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네. |

- ①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한적한 곳에서 홀로 진리를 탐구한다.
- ②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용적 지식을 쌓는다.
- ③ 지식과 덕이 별개가 아님을 깨닫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.
- ④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를 목표로 삼고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.
- ⑤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주장을 동등하게 존중한다.

2. (가)의 갑은 중국 사상가, 을은 한국 사상가이다.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~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| | |
|-----|---|
| (가) | <p>갑: 성(性)은 순수하고 선한 것이다. 성은 마음의 이(理)이고, 정(情)은 성이 움직인 것이다. 측은수오사양시비(惻隱羞惡辭讓是非)는 정이며 인의예지(仁義禮智)는 성이다.</p> <p>을: 성은 이(理)가 아니다. 만약 성에 본래부터 인(仁)과 지(智)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어진 이와 지혜로운 이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. 선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.</p> |
| (나) | <p>갑,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.</p> <pre> graph TD Start[갑,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.] --> A{A} A -- 예 --> B{B} A -- 아니요 --> C{C} B -- 예 --> End1[갑의 입장] B -- 아니요 --> C C -- 예 --> End2[을의 입장] </pre> <p><범례> □: 출발 조건 ◇: 판단 내용 ...: 판단 방향 ▭: 사상가의 입장</p> |

- ① A: 사람은 선행의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가?
- ② B: 수오의 정을 확충해야 비로소 의가 형성되는가?
- ③ B: 사람의 성에는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는가?
- ④ C: 사람의 성은 순선하지만 악으로 변할 수 있는가?
- ⑤ C: 인이 내재함은 측은의 정을 통해 알 수 있는가?

3.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종이를 자르는 칼은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. 칼에 대한 개념을 가진 장인이 만들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. 인간에 대한 개념을 가진 신이 없기 때문이다. 인간은 실존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.

< 보 기 >

ㄱ. 인간은 주어진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.
 ㄴ. 인간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.
 ㄷ.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.
 ㄹ. 인간은 자유로우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창조해 나간다.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ㄷ ⑤ ㄴ, ㄷ, ㄹ

4. 갑,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.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눈과 귀의 작용을 멈추게 하라. 몸을 떠나고 앓을 몰아내라. 정신을 집중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.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(氣)로 들어라. 기는 텅 비어 있어서 무엇이든 다 받아들인다.

을: 눈과 귀는 생각하지 못하여 사물에 끌려갈 뿐이다. 마음은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하면 얻을 수 있다. 마음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것이니, 큰 몸[大體]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몸[小體]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.

- ① 욕심을 적게 가지고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[求放心] 한다.
- ② 세상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경지에 도달해야만 한다.
- ③ 외물의 속박에서 벗어나 절대 자유[逍遙]를 추구해야 한다.
- ④ 선의 실현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[謙虛] 다투지 말아야 한다.
- ⑤ 마음에 도덕적 단서가 없음을 알고 규범을 내면화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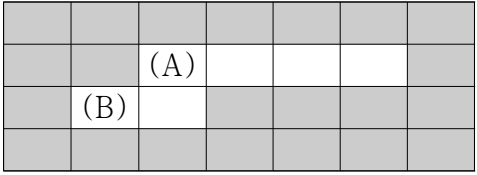
5.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불변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학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.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을 진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적인 도구를 개발하고, 구성하고, 생산해 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. 개념, 사고 체계, 이론 등은 모두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이다.

- ①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 얻게 된 모든 지식은 신뢰할 수 없다.
- ② 지식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발견하는 유용한 수단이다.
- ③ 진리는 실생활의 유용성과 거리가 먼 순수한 탐구 대상이다.
- ④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관념은 지식이 될 수 없다.
- ⑤ 절대적인 진리나 규범을 따르는 행위가 가치 있는 행위이다.

6. (가)의 갑, 을의 입장에서 볼 때, (나)의 퍼즐 속 세로 낱말 (A)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[3점]

| | |
|-----|--|
| (가) | <p>갑: 인의(仁義)는 큰 도(道)가 무너지자 생겼고, 큰 거짓은 지혜가 출현하자 나타났다. 인의를 끊어 버리면 백성은 다시 효도하고 사랑할 것이다.</p> <p>을: 인의를 바탕으로 시비를 분별하고 언행을 가지런히 해야 한다. 선왕들은 성(性)을 변화시키려 노력했고, 그로부터 예의가 제정되었다.</p> |
| (나) |  <p>[가로 열쇠]</p> <p>(A): 이황이 임금께 올린 글로,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열 가지 도설(圖說)로 작성한 것</p> <p>(B): 플라톤이 추구한 이상적 인간. 선(善)의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</p> <p>[세로 열쇠]</p> <p>(A): 개념</p> |

< 보 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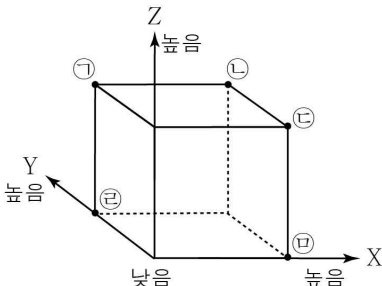
- ㄱ. 갑: 예악을 참된 삶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본다.
 ㄴ. 갑: 고정된 마음이 없어 민심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.
 ㄷ. 을: 인의를 인위적 노력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으로 본다.
 ㄹ. 갑, 을: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인 수양을 중시한다.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ㄹ
 ④ ㄱ, ㄴ, ㄷ ⑤ ㄴ, ㄷ, ㄹ

7. 갑,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.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㉠~㉥ 중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이익은 그것이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 작용할 경우에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.

을: 처지가 가장 불우한 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원리는 재분배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. 개인은 자신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.



- X: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도
- Y: 사회적·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강조하는 정도
- Z: 천부적 재능에 대한 배타적 소유를 강조하는 정도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- [8~9] 갑은 중국 사상가, 을과 병은 한국 사상가들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갑: 마음[心]의 본체가 성(性)이며 성은 이(理)이다. 마음이 드러난 것이 의(意)이고 의의 본체는 지(知)이며 의가 있는 곳이 물(物)이다. 성학(聖學)은 하나의 공부이니, 지(知)와 행(行)을 둘로 나눌 수 없다.

을: 마음의 이치[理]는 방대하여 잡을 수 없고 넓어서 끝을 볼 수 없으니 경(敬)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면 어찌 성을 보존하여 본체를 확립할 수 있겠는가. 경은 마음의 주재이며, 만사의 근본이요, 성학의 처음과 끝이다.

병: 마음은 하나인데 도심(道心), 인심(人心)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(性命), 형기(形氣)의 구별이다. 정(情)은 하나인데 사단(四端), 칠정(七情)이라고 하는 것은 이(理)만을 말하느냐 기(氣)를 겸하여 말하느냐의 차이이다.

8. 갑, 을,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갑: 개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만 바른 사람이 된다.
 ② 을: 도덕성 구현과 사물의 이치 파악은 상호 무관하다.
 ③ 병: 도덕적 감정은 이(理)가 능동적으로 발현한 것이다.
 ④ 갑, 을: 세상에 마음과 관계없는 사물이나 이치는 없다.
 ⑤ 을, 병: 도덕성을 실현하려면 경(敬)의 실천이 필요하다.

9.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- ① 선을 보고 모르기도 하고 알고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.
 ② 선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선을 모르는 것과 같다.
 ③ 배우지 않아도 선을 알고 힘쓰지 않아도 선을 행할 수 있다.
 ④ 악취는 저절로 싫어하고 악행은 저절로 미워하게 되는 법이다.
 ⑤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다.

10. (가)의 관점에서 (나)의 밑줄 친 ‘이 국가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| | |
|-----|--|
| (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,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직접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. ○ 생산 성과를 분배할 때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. 하지만 개인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. |
| (나) | <p><u>이 국가</u>는 레닌이 주도한 혁명을 통해 수립되었으며, 계급이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평등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였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봉건 시대 귀족 같은 새로운 특권층이 생겼으며, 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.</p> |

- ①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.
 ② 모든 생산 수단의 사유를 보장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.
 ③ 자유 시장 경제에서 벗어나서 계획 경제를 실시해야 한다.
 ④ 사적 생산 수단을 모두 사회 공공의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.
 ⑤ 경제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중앙 정부에 일임해야 한다.

[윤리와 사상] 사회탐구 영역

3

11. 고대 서양 사사가 갑, 을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? [3점]

갑: 쾌락은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없는 상태이다. 고풍의 고통을 벗어나는 순간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. 죽음과 같은 최고의 불안을 던져 주는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때 정신적 쾌락은 최대가 된다.

을: 쾌락을 추구하면 자신을 비난하게 될 것이고,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신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.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,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자신의 바람을 맞추어야 한다.

| | 질문 | 갑 | 을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① | 운명을 개척해야만 행복을 얻게 되는가? | 예 | 예 |
| ② | 덕이 있는 행위는 자연법과 일치하는가? | 예 | 아니요 |
| ③ | 쾌락은 진정한 선이면서 삶의 목적인가? | 예 | 아니요 |
| ④ | 쾌락을 위해서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가? | 아니요 | 예 |
| ⑤ | 행복을 위해서 검소와 절제가 필요한가? | 아니요 | 아니요 |

12.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. 학생 답안의 ㉠~㉣ 중 옳지 않은 것은?

서술형 평가

◎ 문제 : (가), (나) 사상의 입장에 대해 서술하시오.

(가) 나는 한 나라의 사람으로서는 믿음으로 사귀고 자식으로서는 효도하고 부모로서는 자애롭고 신하로서는 공경하고 임금으로서는 어질어야 한다. 몸을 닦아야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온 세상이 화평하게 된다.

(나) 나는 이 가족, 이 부족, 이 민족에 속해 있다. 나는 나의 가족, 나의 도시, 나의 부족,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, 기대와 책무 등을 물려받는다. 이것들은 나의 삶에 주어진 사실이고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.

◎ 학생 답안

(가)는 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중시하였으며, ㉡ 인륜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추구하였다. (나)는 ㉢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되는 전통을 중시하였으며, ㉣ 공동체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. 그리고 (가), (나) 모두 ㉤ 구성원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.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13. 근대 서양 사사가 갑의 입장에서 <사례> 속 K의 행위에 대해 내릴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용기와 같은 기질들은 선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의지가 선포하지 않으면 해가 될 수 있다. 용감한 사람이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. 그 자체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의지뿐이다.

<사례>

K는 바다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발견하였다. 평소 수영에 자신이 있었던 K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였다.

- ① 동기와 무관하게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.
- ②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.
- ③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의무를 다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.
- ④ 동정심에 기반을 둔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.
- ⑤ 자신의 안전보다 남의 생명을 우선시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.

14. (가)를 주장한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, (나)의 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| | |
|-----|---|
| (가) | 바람이 그쳤으나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, 이치를 보았으나 망념은 스러지지 않는다. 깨친 뒤에도 오래 비추고 살펴 망념이 일어나도 따르지 말고, 덜고 덜어 무위(無爲)에 이르러야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다. |
| (나) | 제자: 우리가 '궁극의 경지'에 이르려면 돈오(頓悟)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? 스승: ㉠ |

- ① 철저한 고행(苦行)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체득해야 하네.
- ② 경전과 교리 탐구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직관해야 하네.
- ③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서 나쁜 습성[習氣]을 없애야 하네.
- ④ 모든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바라밀(波羅蜜)을 실천해야 하네.
- ⑤ 인위적인 규범을 버리고 대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하네.

15. 서양 사사가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인간은 본성상 공동체에 살도록 되어 있으며, 몇 개의 존락이 크고 완성된 단일 공동체로 결성될 때 자연스럽게 국가가 나타난다.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이며 으뜸가는 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다.

을: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비교적 평화롭지만 자연권을 향유하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자의 권리를 공동체에 위임함으로써 국가를 세운다. 국가는 오직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,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유지된다.


- ① 갑은 국민이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다.
- ② 갑은 사회는 자연의 산물이고 국가는 인공물이라고 본다.
- ③ 을은 국가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수립된다고 본다.
- ④ 을은 복종할 국가를 결정할 권리가 개인에게 없다고 본다.
- ⑤ 갑, 을은 구성원들의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된다고 본다.

16. (가)의 갑, 을은 근대 한국 사상가들이다. 이들이 (나)의 <토론 주제>에 대해 제시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| | |
|-----|---|
| (가) | <p>갑: 우리의 도(道)는 무위이화(無爲而化)이다. 그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며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진다.</p> <p>을: 우리는 일원상(一圓相)을 본받아 심신과 사리(事理)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. 수행이 무르익으면 영육쌍전(靈肉雙全)에 이른다.</p> |
| (나) | <토론 주제>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? |


- ① 갑: 규범과 제도를 모두 철폐하고 무위의 도를 따라야 한다.
 ② 갑: 사람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.
 ③ 을: 서로의 원한을 풀어내어 함께 살아가야[解冤相生] 한다.
 ④ 을: 우리의 정신을 지켜내고 일체의 외래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.
 ⑤ 갑, 을: 물질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정신을 개벽(開闢)해야 한다.

17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

갑

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호감과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. 이것이 도덕의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.



을

공리의 원리가 도덕의 원리입니다.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입니다.

- < 보 기 > —
- ㄱ. 이성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행위는 상호 무관한가?
 ㄴ. 쾌락은 한 가지 종류이고 양적으로 계산 가능한가?
 ㄷ. 사회의 행복 증진에 유용한 행위가 옳은 행위인가?
 ㄹ. 감정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는가?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ㄷ
 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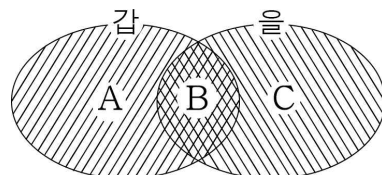
18. 다음 사상의 입장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보살의 길로 들어선 자는 일체 중생을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열반[無餘涅槃]의 세계로 인도하여 완전한 멸도(滅度)에 들게 하리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. 그리고 마땅히 색(色)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.

- < 보 기 > —
- ㄱ. 만물의 실상이 공(空)임을 깨달아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.
 ㄴ. 깨달음을 얻으려면 탈속해서 중도(中道)를 실천해야 한다.
 ㄷ. 보살은 마땅히 상(相)에 머물지 않는 베풀을 행해야 한다.
 ㄹ. 팔정도(八正道)를 실천해야 불변의 자아를 찾을 수 있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9. (가)의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 ~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? [3점]

| | |
|-----|---|
| (가) | <p>갑: 최고선은 내세에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. 이를 위해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고 믿음, 소망,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.</p> <p>을: 최고선은 신 또는 자연을 이성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다.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만물이 생겨남을 인식해야 한다.</p> |
| (나) |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 <div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범례></p> <p>A: 갑만의 입장</p> <p>B: 갑, 을의 공통 입장</p> <p>C: 을만의 입장</p> </div> </div> |

- ① A: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.
 ② B: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격신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.
 ③ B: 신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이다.
 ④ C: 신은 만물의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다.
 ⑤ C: 인간은 자유 의지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.

20.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'✓'를 표시한 학생은? [3점]

사람의 영혼 안에는 보다 나은 부분과 보다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자가 후자를 통제할 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. 자신 안에 있는 세 부분들이 각자의 일을 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.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방식은 개인이 정의롭게 되는 방식과 같다.

| 학생 | 갑 | 을 | 병 | 정 | 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|---|
|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. | ✓ | ✓ | | ✓ | |
| 절제는 국가의 구성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. | ✓ | | | ✓ | ✓ |
| 이성으로 욕구와 기개를 조절해야 올바른 사람이 된다. | | ✓ | ✓ | | ✓ |
|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. | | | ✓ | ✓ | ✓ |

-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

※ 확인 사항
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십시오.